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중랑구(을)** 선거구

책자형 선거공보



**바꾸자 중랑!**  
**통하라 중랑!**

중랑이 통(通)하게 하겠습니다

**2**

**중랑** 진도배기!  
**윤상일**

#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중랑구을 선거구)

## 1. 인적사항

| 기호 | 소속정당명 | 후보자성명 | 성별 | 생년월일(세)             | 직업  | 학력                  | 경력                                 |
|----|-------|-------|----|---------------------|-----|---------------------|------------------------------------|
| 2  | 미래통합당 | 윤상일   | 남  | 1955.01.19<br>(65세) | 정당인 | 성균관대학교<br>중어중문학과 졸업 | (전) 제18대 국회의원<br>(현) 대한민국 헌정회 운영위원 |

##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 재산상황 (천원) |           |           |      |                      | 병역사항                   |                  |
|-----------|-----------|-----------|------|----------------------|------------------------|------------------|
| 계         | 후보자       |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후보자                    | 18세이상 직계비속       |
| 9,156,348 | 7,009,973 | 2,146,375 | 작고   | 장남: 고지거부<br>장녀: 고지거부 | 만기제대<br>(27개월)<br>육군상병 | 장남: 만기제대<br>육군병장 |

## 3. 세금납부·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 실적 (천원) |         |        |       | 후보자 전과기록  |
|---------------------------------------|---------|--------|-------|---|
| 구분                                    | 납세액     | 체납내역   |       |   |
|                                       |         | 체납액 누계 | 현 체납액 |   |
| 계                                     | 624,446 | 453    | 0     | - 건축법위반: 벌금 1,200,000원<br>(1987. 12. 03)<br>- 법인도피: 벌금 2,000,000원<br>(2006. 12. 27) |
| 후보자                                   | 382,451 | 0      | 0     |   |
| 배우자                                   | 35,730  | 0      | 0     |   |
| 직계존속                                  | 0       | 0      | 0     |   |
| 직계비속                                  | 206,265 | 453    | 0     |   |

## 4. 소명서

- 1987년 임차인의 불법개조(영업)으로 인해 건물주(본인)에게 1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 것임.
- 2006년 본인으로부터 건물관리의 위임을 받은 A씨가 임차인 B씨와 임의로 이종계약을 체결 후 잠적, 도피하였음. 관리인 A씨의 도피로 건물주였던 본인은 해당 사건과 관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책임을 지고 약식재판을 통해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음.

# 중랑의 피가 통(通)합니다

어릴 적 봉화산과 중랑천 뚝방길을 맨발로 뛰어다녔습니다.  
친구들과 중랑천에서 고기 잡고 떡을 감았습니다.  
조상대대로 400년 살아온 고향땅 중랑에서  
서로 돕고 살아가는 이웃의 따뜻한 정을 배웠습니다.

중랑 **진도배기**,  
중랑을 키우겠습니다

‘낙후된 중랑, 변두리 중랑’이라고들 합니다.  
‘서울 아닌 서울’이라고도 합니다.

지금껏 정치는 무얼하고 있었습니까?  
낙하산으로 내려온 정치인들은  
중랑을 위해 해놓은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중랑발전의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핵심은 지역경제입니다.  
저는 해운회사에서 실물경제를 익혔습니다.

18대 국회의원 시절엔  
기획재정위원으로 나라살림을 볼 줄 아는  
안목을 키웠습니다.  
행정안전위원으로 주민을 위한 지방행정이  
어떠해야 하는지 훤히 꿰고 있었습니다.  
중랑경제를 살리는 맥을 짚을 수 있습니다.

**이제 중랑을 키우겠습니다.**

**중랑발전! 중랑 진도배기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어린시절, 신내동에서



아들, 딸과 개울가에서



범양상선 근무시절



제18대 국회의원 시절

# 진포배기는

## 중랑의 10년 앞을 내다봅니다



10년 전, GTX-B(고속광역철도망) 노선이 망우역을 거쳐 연장될 수 있도록 한 사람, 바로 **윤상일**이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인천 송도~청량리'까지였습니다. 청량리가 종점이었습니다. 소외되는 중랑은 뻘한 일이었습니다.

2010년, 국회 행정안전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저는 노선 연장을 주장했습니다. 당시 김문수 경기지사로부터 망우를 지나 '남양주까지 가능하다'는 확답을 얻어낸 바 있습니다. 국회 속기록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드디어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조기착공이 절실합니다.

10여년 앞을 내다본 **중랑 진포배기**가 시작한 일입니다. 이제 조기착공으로 중랑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 GTX-B 노선



**중랑발전! 10년 앞을 생각합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망우역 연장을 주장 (2010.10.14.)



# 진도배기 윤상일의 중랑발전 '3456프로젝트' 비전



# 윤상일의

# 6가지 중랑발전 약속!

## 중랑발전, 불도저가 되겠습니다

- 망우/상봉역 동북부 교통 허브화 대단위 개발  
(중랑 COEX 상업·문화 랜드마크화 추진)
- 각종 규제 완화 및 개발여건 조성  
(동일로 등 일반주거지역 → 상업지역 변경)
- 중랑구 그린벨트 지역 규제 완화 추진
- 노후주택 밀집지 재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
- 기존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역 지원 확대(중화2, 묵2, 망우본동등)
- 신내차량기지 이전 및 IT기업 단지 조성
- 신내역 주변 교통·통행불편 해소

01

## 사통팔달의 중랑을 만들겠습니다

- 중랑경제의 남북통일  
- 경춘선 망우~신내 구간 지하화 추진  
- 망우선 중화2동 구간 지하화 추진  
- 경의중앙선 청량리~망우~양원 구간 지하화 추진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및 생태공원 조성 추진
- 면목선 도시철도(신내~청량리) 조기 착공
- 경의중앙선, 경춘선 열차 증편
- 주택지 공영주차장 확충
- 전철역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확충

02

## 삶의 쉽표가 있는 문화중랑을 만들겠습니다

- 문화예술회관, 복합문화센터 등 문화인프라 확충
- 문화예술, 관광, 체육 분야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 태릉시장 등 전통시장 현대화 및 활성화
- 생활체육(축구, 배드민턴 등) 시설개선 및 활성화
- [망우산~묵동천~중랑천] + [재래시장] 연결, 휴(休)관광벨트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03



# 발전으로 통하는 중랑!

## 교육1번지로 통하는 중랑을 만들겠습니다

- 학교 병설 유치원 등 국공립유치원 확충
- 초중고 급식관련 노후 자재 및 시설 개선
- 지역 명문중고 육성 위한 예산지원 확대
- ‘중랑 학원가’ 조성(강남, 노원 등 학생유출 방지)
- 고교-대학 연계 인재육성 프로그램 확대 추진  
(예: 한국외대 외국어 특화 교육, 고려대 멘토링 사업 등)

04

## 보건/치안 사각지대 제로(Zero), 안전중랑을 만들겠습니다

- 마스크 등 긴급비상물자 비축용 지원예산 확보
- 골목길 및 학교주변 CCTV 시설 개선
- 독거 어르신 안전 돌봄 서비스 구축
- 여성 1인 가구, 한부모 가정 방법서비스 지원

05

## 나눔이 있는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 소상공인 지원 확대 및 복지시스템 구축
-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시설 지원 확대
- 공공기관 인증 ‘24시간 아이 돌봄센터’ 도입
- 취약계층(어르신/장애인 등) 유형별 틈새시장 및 일터 발굴
- 경로당 운영비 및 어르신 교육 지원 확대

06

# 달라지는 우리동네 중량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주택가 주차난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 목1·2동

- 중량천 주변 및 주택가 공영주차장 확충
- 목1동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신설
- 목2동 복합청사 신축 예산 확보 지원
- 옛 중량경찰서 부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 신내1·2동

- 신내1동~양원지구방향 지하통행로 확보
- CCTV 및 비상벨 설치 확대
-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
- 창업지원센터 건립 및 청년창업 지원
- 봉화산역 에스컬레이터 확충

## 목2동

## 중화2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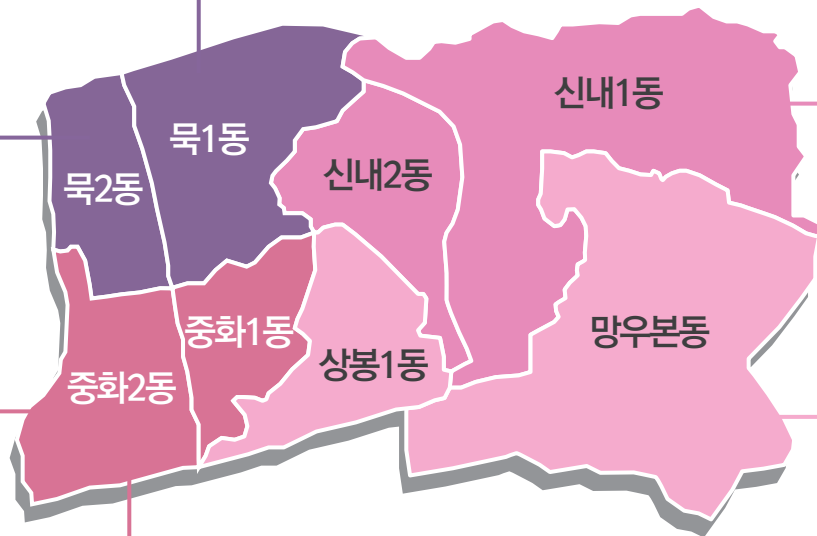
- 중량천로 버스노선 신설 (목2동~중화2동)

## 중화1·2동

- 다세대 주택가 공영주차장 확충
- 철로변 소음문제 개선 (한신APT 주변 방음벽 시설 보완)
- 태릉시장 시설개선 및 활성화
- 장미공원 연계 사계절 관광공원지 조성

## 상봉1동 망우본동

- 다세대 주택가 공영주차장 확충
- 상봉역 7번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 망우역시문화공원 관광명소화 및 주차장 확충
- 망우복합역사내 문화예술 시설 확충
- 망우숲 및 잔디구장 주차장 확충





# 중랑은

## 낙하산들의 정치무대가 아닙니다

우리 중랑 사람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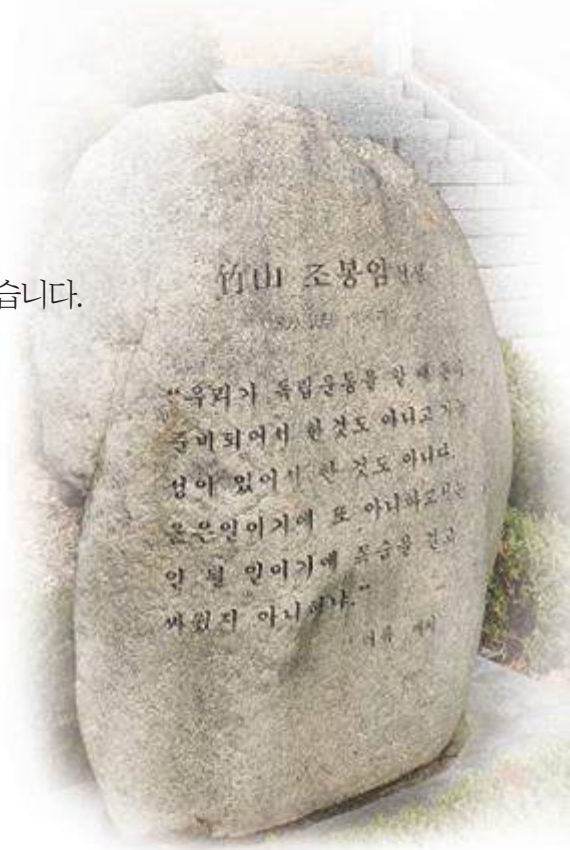
언제 중랑사람에게 중랑을 맡겨본 적이 있습니까?  
**중랑발전! 중랑사람에게 맡겨야 합니다.**

저는 실용 보수입니다. 따뜻한 보수입니다.  
과격하 정치 논쟁보다 중랑을 위한 실익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서민, 민생을 먼저 챙기겠습니다.**

중랑은 더이상 떠나는 곳이 아닙니다.  
돌아와서 정착하는 중랑입니다.

‘중랑’ 하면 ‘살기 좋은 곳’으로  
통(通)하는 세상으로 만들고 싶은  
중랑사람 윤상일의 소원입니다.

**땀줄도 묻었고, 뼈도 묻겠습니다.**  
**잘사는 중랑, 중랑발전을 위해**  
**죽을 각오로 뛰겠습니다.**



\* 망우 역사문화공원 내 조봉암 선생 묘소

## 중랑의 자주독립을 꿈꾼다

독립운동가이자 국회부의장이셨던 죽산(竹山) 조봉암 선생께서는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때 돈이 준비되어서 한 것도 아니고 가능성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다. 옳은 일이지가 또 아니라고서는 안 될 일이지가 목숨을 걸고 싸웠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18대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옳은 일을 위해서 또 해야 할 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지금도 역시 고향 중랑을 위해 옳은 일, 해야 할 일을 위해 중랑 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소신은 변함없습니다. 살기좋은 자족도시로, ‘자주독립 중랑’을 만드는 것. 이것이 제가 정치에 팔을 걷어붙인 이유입니다.

중랑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중랑의 아들, 딸들이 중랑의 인재로 중랑을 위해 일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중랑의 미래를 위해 중랑사람을 만들어 주십시오!

# 중랑이 묻습니다

## 지금 사는 게 정말 사는 거냐고

어릴 적 중랑은 일자리가 넘쳤습니다.  
시멘트, 목재, 연탄공장까지  
제약회사를 비롯한 산업도시였고, 자족도시였습니다.  
이웃들 정도 많아 살기좋은 중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재정자립도는 물론이고  
교육만족도, 주거환경만족도까지  
꼴찌 주변을 맴도는  
자치구로 전락했습니다.

분통하고 울화가 치밀어옵니다.

서민은 갈수록 살기 어렵고  
중랑의 민생은 피폐해져 갑니다.  
신종 코로나 피해는 더 걱정입니다.

중랑은 묻습니다.  
지금 사는 게 정말 사는 거냐고,  
중랑의 정치는 그간  
무엇을 하고 있었냐고.

우리 지역구와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들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  
중랑을 쥐락펴락하는 정치놀음에  
중랑은 골병이 든 것입니다.

이번에는 꼭! 바뀌어야 합니다.  
바꾸는 것이 중랑을 살리는 길입니다.



# 정답은 중랑발전입니다

##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노력이 부족해서라면 몰라도  
교육환경이 좋지 않다면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학군 때문에 다들 이사오기를 꺼리고  
중랑을 떠나려고 한다면  
중랑부터 바꿀 공리를 해야 합니다.

바꾸지도 않고서  
무엇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중랑 일대의 변혁이 필요합니다.**  
변혁이야 말로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부터 바꾸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중랑을 바꾸지 않으면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중랑의 미래를 위한 선택!**  
**중랑 진또배기 윤상일입니다.**



# “통하라!”

육군 통신병,  
윤상일의 사명이었습니다.

중랑을 위한 저의 사명 역시  
“통하라”입니다.  
첫째는 지역주민과의 소통입니다.  
둘째는 중랑이 통하는 세상입니다.

국회의원과 소통이 잘 되는 중랑,  
세상과 통하는 중랑을 만들겠습니다.

중랑의 피가 통하는  
중랑 진포배기 윤상일!  
중랑이 통(通)하게 하겠습니다.



107통신대대 파견지



## 윤상일이 중랑과 함께 걸어온 길

- 중랑구 출생(중화초 졸업)
- 경희중·경희고 졸업
- 성균관대 중어중문학과 졸업
- 경희대 경영대학원 석사 졸업
- 국민대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 육군 만기전역(통신병)
- 전) 범양상선(stx팬오션) 근무
- 전) 제18대 국회의원(새누리당)  
\*기획재정, 행정안전, 국회운영위원
- 현) 대한민국 헌정회 운영위원